

JTS

VOL. 127
2017.0910



**JTS는 UN경제사회이사회(UNECOSOC)의
특별 협의지위를 획득한 국제구호단체입니다.**

1993년 인도 불가촉천민마을에서 시작해서 필리핀의 분쟁지역
민다나오, 식량부족으로 생존 위기에 있는 북한, 전쟁과 자연
재해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아시아 지역에서 기아, 질병, 문맹
없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COVER STORY

인도 수자타카카데미 마당은 늘 꽃들로 넘쳐납니다.
활동가 한 분은 꽃밭을 정리하여 꽃들을 모으고,
그들 한쪽 구석에 버려진 주전자는 꽃병이 되었습니다.
정리된 꽃들과 버려진 주전자는 가을빛 선물이 되었습니다.



Contents

해외소식

02 나마스떼, 동게스와리(인도)

Monsoon(문순)이 휩쓸고 간 자리 _ 신예슬
인도 활동 소식

12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교육 현장에서 차이를 만든다”
“Making a Difference in the Field Education”
_ 수밀라오(Sumilao) 특수학교(SPED) 교사 루크레시아(Lucrecia A. Abao), 라이젤(Ryziel G. Sevileno)
필리핀 활동 소식

국내소식

19 함께 나누는 사랑(안산 다문화센터)

한 가족이 되어가는 시간_황정연

21 함께 하는 사람들

담힐리고 나누며 함께하는 시간_유진영
국내 활동 소식

26 나눔회원소식

후원인의 소리
특별후원금 / 해외JTS 후원금 / 나눔저금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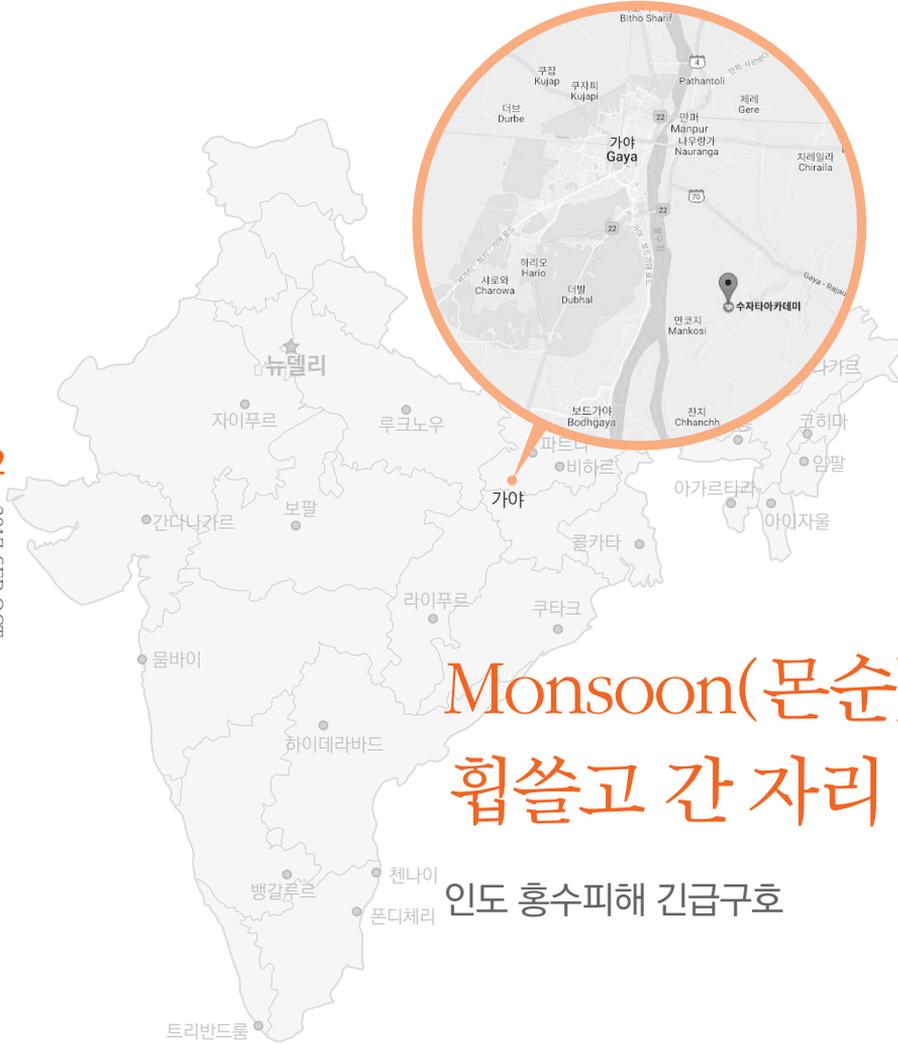
퍼낸날 2017. 10. 11 퍼낸이 법륜 만든이 박지나, 김기진 퍼낸터 JTS
도운이 정영미, 최경순, 윤미옥, 윤민아, 이주용, 김기연, 권지연, 임양호, 신지원, 김옥희, 유주영
디자인·제작 신명기획 (02)2273-6128

주 소 06653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7(서초동) 전화 (02)587-8756 후원문의 (02)587-8995
팩스 (02)587-8998 E-mail jts@jtsint.org 홈페이지 www.jts.or.kr

해외소식 인도

나마스떼, 등게스와리

2
2017 SEP-OCT



Monsoon(몬순)이 휩쓸고 간 자리

인도 홍수피해 긴급구호



인도는 몬순기후로 인해 3, 4년에 한 번씩 큰물 피해가 생깁니다.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대형 관개공사를 하지않는 한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글쓴이 인도JTS·신예슬 _ 마을개발팀 활동가



물에 잠긴 마을 모습

긴급구호단 파견

2017년 8월, 남아시아 지역(인도, 네팔, 방글라데시)에 몬순(우기) 폭우의 영향으로 전체 1,200여 명이 사망하고, 4천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도 역시도 북동부, 북부 지역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도JTS는 2팀의 긴급구호단을 인도 북동부와 북부 홍수피해지역에 파견하였습니다.

“

북부 비하르에서는
홍수로 주민 153명이
숨지고, 40만 명이
피난 캠프로
옮겨갔습니다.

내가 속한 팀은 인도 북부에 위치한 비하르 주에서 긴급구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도 인도JTS가 위치한 곳이 비하르 주입니다. 인도JTS는 다행히도 비하르의 남부에 위치하여 홍수피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북부 비하르에서는 홍수로 주민 153명이 숨지고, 40만 명이 피난 캠프로 옮겨갔습니다.

인도 언론에 최악의 피해지역이라고 보도된 곳으로 답사를 떠났습니다. 나 역시 처음 진행하는 긴급구호라 출발하는 마음이 제법 비장하기도 하고, 재난지역에 가려니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7시간을 차로 달려간 피해 지역. 피해지역이 가까워져 갈수록 도로 옆의 밭들이 물에 잠겨있고, 지나는 강에는 물이 짝 차서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점점 홍수가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길가에 늘어진 비닐집

피해 규모가 가장 크다는 무자퍼푸르 지역에 다다르니 고속도로변에 사람들이 끝없이 비닐로 집을 지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주민 말에 의하면 집이 물에 잠겨 있어 차량이 뿡뿡 지나가는 도로변이라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며 가장 필요한 것은 비를 막아줄 텐트(방수 천막)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우기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비닐로만 비를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에 구호팀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시장을 찾아 큼지막한 텐트를 수 소문해 사들이고, 맨바닥에 자는 이들을 위해 매트를 사들였습니다. 정부와 경찰의 협조 하에 350가구에 텐트와 매트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텐트지원을 받고 기뻐하는 피해주민



홍수가 지나간 뒤 초토화 된 집

또 다른 마을 *셔오하르*의 *너르까띠아*. 이곳을 방문하니 홍수가 지나간 마을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네팔* 국경에 인접한 마을, *네팔*의 *히말라야*에서 흘러온 많은 양의 빗물에 인근 강물이 범람했고 물이 머리끝까지 차올랐다고 합니다. 나무와 뗏단으로 만든 집들이 갑자기 들이친 물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농사지어 보관해놓은 쌀과 곡식들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고 말하는 이들의 표정에는 허무함과 동시에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겪은 *너르까띠아* 마을 540가구에는 가구당 쌀 11kg, 달(인도콩) 3kg, 식용유 1ℓ, 향신료 300g, 소금 1kg, 비누 2장으로 생활에 필요한 식재료와 물품을 꾸러미를 만들어 배분했습니다.

“

가구당 쌀 11kg, 달(인도콩) 3kg, 식용유1ℓ, 향신료 300g, 소금 1kg, 비누 2장으로 생활에 필요한 식재료와 물품을 꾸러미로 만들어 배분했습니다.



쌀을 지원받고 기뻐하는 피해주민

이 마을의 배분 과정에서는 다소 긴박함이 있기도 했습니다. 구호팀 선발대가 마을에 먼저 들어가 쿠폰을 배분하는 데 문제가 생겼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쿠폰을 서로 달라고 한다면서,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던 마을 리더도 어려워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마을 리더가 준비한 배분 명단이 각 가구가 모두 포함된 게 아니라 마을 리더 가족들이 더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명단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타 NGO 단체에서 들어와 물품을 지급하려 했으나 마을 사람들이 거칠어 물품을 고루 배분을 못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뺏긴 곳이라고 합니다. 긴급구호이다 보니 540가구에 대한 세세한 부분과 마을 배경까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웠는데 결국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JTS 스텝들로만
배분을 진행해야
하는데 500여 가구를
통제하기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전에 정부에서 긴급 식량 배분 시 경찰을 배치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배분 당일 경찰이 응하지 않아 JTS 스텝들로만 배분을 진행해야 하는데 500여 가구를 통제하기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구호 물품은 이미 트럭 2대에 실려 마을 밖에 기다리고 있고, 해는 저가고 있었습니다. 저 물건들을 어쩔 것인가. 난감했지만 차를 돌려 마을을 빠져 나왔습니다.



물품 배분 전 긴장된 분위기



물품 배분 전 JTS 인도 활동가

밤 9시가 다 되어 지역 시장을 만나 협조 요청을 구하니 담당 공무원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동사무소 건물에서 경찰과 지역 책임자 총괄 아래 물품 지원이 성사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주민 리스트로 물품을 배분하여 중복과 누락 없이 모든 가구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이라 다소 우왕좌왕했지만, 도움 주었던 지역상인, 정부 관계자들 덕분에 무사히 지원을 마치고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도JTS는 전체 1,244가구(북부, 북동부 2팀 지원 총계)에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주민 리스트로 물품을
배분하여 중복과 누락 없이
모든 가구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긴급구호 지원사업은 인도JTS에서
유치원에서부터 지원받으며 자라난 인도인 스
텝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었습니다. 각자 말
은 부분을 책임감 있게 해내는 모습을 보며 지
난 20년 동안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존재였
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돕고, 자신이 가진 것
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뭉클한 시간이었습니다.

홍수 피해로 일상이 무너진 이들에게 JTS
의 구호 물품이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
랍니다.



물품 지원 후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유치원 아이들의 새 학용품

새 학기를 맞이하여 유치원 아이들에게 새 가방과 공책, 연필, 지우개를 지급했습니다. 아이들 얼굴에 함박 웃음꽃 가득한 걸 보니 새 학기 공부도 한층 더 즐겁게 진행되겠습니다.

유치원 마을교사 외부수련

매일 만나는 수자타아카데미 선생님들과 비교하면 전정각산 너머에 있는 5개 유치원의 선생님들은 배움의 기회가 다소 적을 수 있는데요. 각 마을에 거주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외부수련을 진행했습니다. 수자타아카데미 내에서 찰흙 만들기 교육용 영상과 다큐멘터리 시청 후에 소풍 겸 수련으로 *보드가야* 나들이를 했습니다. 태국,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절을 견학하고, 모처럼 외식도 하고, 메인템플 잔디밭에서 아침에 배워온 찰흙 놀이로 각자 이름과 숫자, 알파벳 등도 만들어보았습니다. "I AM GROUND~", 처음 접하는 놀이에는 낯설고 어려워하면서도 흥미로워하네요. 이번 수련에서 선생님들이 경험한 것들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소풍날

본교와 분교 1~10학년 약 850명의 아이과 선생님들이 상기된 얼굴로 학교 앞산에 빼곡히 모여 앉았습니다. 장기자랑으로 노래와 춤이 나옵니다. 흥이 많은 인도 아이들이 온 에너지를 불사르며 춤을 추면 구경하는 아이들은 있는 힘껏 손뼉을 치며 장단을 맞춥니다. 춤을 추다, 손뼉을 치다 배가 고파진 아이들에게 얼굴만 한 사과와 입에서 살살 녹는 미타이(인도 당과)가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



가 정성껏 준비해 주신 도시락을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것으로 즐거운 소풍을 마무리했습니다.



학습하며 봉사하는 10학년 학생들

8학년까지 중등과정을 마친 아이들은 JTS의 지원을 받아 수자타 외부의 정부 운영 고등학교에 다니며 하루 3시간씩 학교에서 봉사를 합니다. 지난 1년 열심히 봉사하며 학교 운영을 도왔던 10학년 친구들이 새 학년이 되어 일부는 초등 1, 2학년 교사로, 나머지는 유치원의 교장 선생님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만성적인 교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던 수자타아카데미는 이들의 대활약으로 초등부와 유치원의 운영이 훨씬 안정되었고, 커리큘럼을 연구하며 10학년 학생들 자신도 많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0

2017 SEP-OCT

결핵환자 지원

1998년 학교 주변 두르가푸르와 자그디스푸르를 대상으로 처음 결핵 검사를 실시하여 약과 영양식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200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결핵 관리팀을 조직하고 요양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2008년부터는 인도 결핵 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정부로부터 검진과 약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바카병원에서는 병원 검진가는 것을 지원하고, 부실한 영양으로 인해 완치가 쉽지 않아 일주일에 한번씩 식량 쌀 3kg, 달(콩 종류) 2kg, 그람(콩 종류) 1kg, 미타(설탕) 500mg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2명이었던 결핵환자는 완치 판정을 받았고 얼마 전 두르가푸르에 사는 어머니와 아들이 지원을 받기 시작했고 지금은 5명의 결핵 환자가 있습니다. 완치되는 기간은 3~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깁스 하는 중

병원이 생기고부터 20년 넘게 계속 봉사 활동을 하는 까메스왈지는 깁스 치료 교육을 받고 올해부터는 심하지 않은 골절 환자를 직접 치료하고 있습니다. 수자타 아카데미 여학생이 넘어지면서 다친 팔에 깁스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4명의 환자가 깁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체중아 지원

5세 미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저체중아 지원은 총 6 단계의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양 상태가 괜찮은 아이들은 한 번 지원을 받고 그다음은 3번 영양 상태가 안 좋은 5/6등급은 6번의 영양식을 지원받습니다. 4차 지원이 이루어졌고 190여 명의 대상자 중에 163명이 와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하기 전 결핵 환자들이 늘고 있는 시기여서 결핵에 관한 정보와 위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왈비가 마을 우물 수리단

가왈비가 마을에 우물 보수 수리단(함께하는 노동)을 진행했습니다. JTS에서는 우물 보수에 필요한 시멘트, 벽돌, 모래, 자갈 등을 지원하고 마을 사람들 자신의 노동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동게스와리 마을 사람들은 핸드펌프와 우물에서 식수를 얻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가왈비가 마을의 우물을 이용합니다.



재봉반 운영

2017년 재봉반이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의 기혼여성들이 대상이고,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 배움터입니다. 총 17명이 입학하였고, 재봉 기초 교육에서부터 옷 만들기까지 실습을 진행합니다.

해외소식
필리핀
살라맛, 민다나오



12
2017 SEP/OCT

교육 현장에서 차이를 만든다

Making a Difference in the Field Education

수밀라오 SPED(special education) 세미나



세미나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말해주면, 나는 잊습니다. 가르쳐주면, 나는 기억합니다.
함께 참여한다면, 나는 배웁니다.”

글쓴이 필리핀 JTS · 수밀라오(Sumilao) 특수학교(SPED)
교사 루크레시아(Lucrecia A. Abao), 라이젤(Ryziel G. Sevileno)



세미나 참석 수밀라오 특수교사

수밀라오 장애인 특수학교의 출발

수밀라오 장애인 특수학교와 기숙사 건립은 지난 2015년 당시 키솔론(Kisolon)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로테스 플로레스(Lotes N. Flores) 선생님이 지역 학교 운영위원회에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제안하면서 출발했습니다. 또한 수밀라오 호세 안토이오 빌로(Jose Antonio A. Villo) 시장님의 협력이 더해져 2016년 성공적으로 준공했고, 2017년 올해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남학생 24명, 여학생 8명, 총32명의 학생이 등록하였습니다. 청각장애, 신체장애, 학습부진, 복합장애, 다운증후군, 지체 장애, 자폐증의 각 8가지의 종류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입니다. 등록된 학생 중, 남학생 15명, 여학생 6명, 총 21명의 학생이 기숙사에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밀라오 특수학교에는 루크레시아(Lucresia A. Abao), 라이지엘(Ryziel G. Sevileno), 로멜로(Romulo B. Abunda Jr.)와 마에안(Mae Ann M. Pulido)의 4명의 일반교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특수학교 근무경험은 모두 처음입니다. 또한, 수밀라오 시청의 지원으로 아리아니(Ariannie Joy A. Kilnit)와 크리스틴(Christine Claire Torneado) 선생님 2명이 보조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입니다. 학업을 마치고 학위를 받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된다는 것은 끝이 없는 과정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곧 배우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 곧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르침은 항상 배움과 연결되어 있고, 배움 역시 항상 가르침을 따라옵니다. 좋은 교사는 자신의 분야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수밀라오 특수교사 라이지엘, 루크레시아, 로물로, 마앤안 선생님

특수교육 세미나

우리 교사 4명은 2017년 8월 11일~13일, 3일간 *다바오* (Davao)에서 열린 특수교육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세계적인 특수교육의 변화와 필리핀 유치부~12학년 학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필리핀 교육전문가 협회(PACAE)에서 주관하고, 남동아시아에서 특수교육 전문기관인 SEAMEO SEN의 협력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야스민 박사(Dr. Yasmin Binti Hussain, SEAMEO SEN, 말레이시아)는 “세계 특수교육의 변화와 현재 특수교육 현장의 트렌드와 혁신”을 발제하고, 호세 박사(Dr. Jose D. Tuguinayo, Jr., 필리핀 교육청)는 “장애 학생들과 상호 결합하여 교육하는 효과적인 전략과 테크닉”과 “필리핀에 새롭게 도입된 유치부~12학년 학제”에 대해 발제했고, 사파니 박사(Dr. Safani Bari, SEAMEO SEN, 말레이시아)가 이상의 주제를 좀 더 심화시키는 것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세미나 참가를 위한 모든 비용은 수밀라오 군청과 JTS에서 지원해주셨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다룬 주제들은 우리 교사들에게 아주 생생하게 다가온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강연자들은 평소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교육자로서 정말 궁금했던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최근 특수교육의 전 세계적인 변화와 발전, 트렌드와 교육방법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이번 세미나에서 배운 것 중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장애 학생들이 그들의 삶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수교육 교육자로서 장애학생들이 인지력,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큼, 그들이 당당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연습시키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 아동 교육에서 멘토가 된다는 것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교수법을 업데이트하고, 진행된 교육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교육프로그램을 향상시키는 것이 특수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에서 장애 학생들이 자립하여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면, 적용된 교육 시스템이 ‘맞다, 틀리다’라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총괄적인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교수법을 계속하여 개선하고, 아이들에게 마음을 다해 훈련, 연습시켜야 아이들을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

특수교육 교육자로서 장애학생들이
인지력,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큼,
그들이 당당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연습시키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미나 참가교사들과 함께

3일간의 세미나를 돌아보며

이번 3일간의 세미나에서, 모든 주제가 흥미로웠고 유익했습니다. 그 중의 가장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것은 '교육 전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두뇌는 각각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어서, 학생들도 각자 좋아하는 학습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편안해야 할 방식의 학습을 받으면 더욱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시각, 청각, 촉각, 운동감각을 쓰는 것을 편안해야 할 것이고, 반면에 어떤 학생은 출석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만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과 일반 아이들은 같습니다. 아이들이 가진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그들 삶의 여정의 선장이고, 필요한 지식을 탐구합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Children with special needs are just like the regular kids, they are these individuals who need to be directed so that they can reach whatever dreams they are holding now. They are the captain of their journey as they explore knowledge and all they need is to have something that will guide them to get the contentment they should have as they finish that expedition.

이번 특수교육과 관련한 국제 세미나에 참가하게 된 것은 잊을 수 없는 날이었고, 계속되는 기회이기를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자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이번 세미나에 참가 기회를 주신 JTS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갈랑잇 교실 2칸 증축 공사 시작

JTS와 군청이 함께 선생님들이 지낼 수 있는 교사숙소를 완공한 후 이어서 교실 2칸 증축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2006년 JTS에서 2칸의 교실을 지어준 후로 현재 바갈랑잇은 4칸의 교실에서 총 7개 학년 108명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입학기부터 신입생이 늘어나면 교실 수가 부족하다는 요청이 있었고, 군과 함께 2017년 사업으로 교실 증축을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15명의 기술자가 땀방울을 흘리며 교실 건축이 한창이에요. 교실은 11월 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지금은 필리핀JTS 시범농장 수확철!

필리핀JTS 시범농장은 지금 수확철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한국인 활동가들이 다 같이 옥수수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총 수확량은 792kg으로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3달 전에 심은 콩들도 수확하였습니다. 시범 농장은 마을에 농업기술을 전파 할 수 있도록 실험하는 곳인데 아직 시작 단계여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농업에 관심이 많거나 농업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필리핀JTS에 들려주세요.



마카파리(Macapari) 고교 기숙사 공사

마카파리(Macapari)고등학교의 기숙사 건축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기공식 후, 지난 4개월간 기초 골조작업을 완성하고, 벽을 쌓고 있습니다. 지붕도 올라가고 있어 이제 실제 건물의 형태로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마카파리고교 기숙사는 필리핀JTS 최대 규모의 건축프로젝트입니다. 가로 30m, 세로 28m 규모의 1층 건물로 기둥만 무려 74개입니다. 특히 100명의 학생이 생활할 공간이라 기초 공사를 더욱 세심하게 진행했습니다. 이제 내부 전기, 배관, 인테리어 등 마감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공사는 오는 11월 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2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들과 함께

한 가족이 되어가는 시간

안산다문화센터 2주년 기념행사

글쓴이 황정연

안산 다문화센터가 2017년 8월 개원 2주년 생일을 맞이하여 다문화 가족들을 초대했습니다.

기념행사일 2주 전부터 많은 자원봉사자가 모였습니다. 봉사자들은 손님맛이를 위한 다문화센터 꾸미기부터 준비하였습니다. 기념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은 음식을 한가지씩 준비해오고 축하공연에도 동참해주었습니다.

봉사자들 모두는 행사 준비를 통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또한, 준비과정을 함께 할 수 있어 즐겁고 행복하다고도 하였습니다.

“

각국의 가족들이
준비한 여러 나라 음식과
새터민분이 준비한 국수도
맛 볼 수 있었습니다.



다문화센터 2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태국 스님 다섯 분과 각 지부에서 50여 명의 손님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과 함께 이곳 센터에서 있었던 2년간의 일들을 영상을 통해 되돌아보았습니다.

태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다문화가족은 노래와 춤을 보여주셔서 기념행사가 여느 동네의 마을 축제 같았습니다. 각국의 가족들이 준비한 여러 나라 음식과 새터민분이 준비한 국수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미얀마분들이 오지 못한 것에 아쉬워들 했지만, 소감 나누는 시간에 스리랑카와 태국 스님들께서 함께 하신 것을 두고두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가족이라는 느낌을 받은 행사였습니다. 참여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

2017 SEP-OCT



전통춤을 보여주고 있는 태국 다문화가족



스리랑카 다문화가족들의 노래발표모습



배추 모종을 심고 있는 봉사자들

땀흘리고 나누며 함께하는 시간

JTS두북창고 봉사

글쓴이 한국JTS해운대지부·유진영

두북에는 JTS 지원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폐고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데 운동장 곳곳에 난 잡초를 뽑거나 한 쪽에 남는 공간에 텃밭을 일구는 등의 관리를 위해 JTS지부에서 봉사활동을 갑니다. 이번에는 해운대 지부에서 19명이 단체로 참석하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봉사자들이 참여하여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마 후 운동장은 풀이 무성하게 웃자란 상태였습니다. 운동장의 잡초 제거와 배추밭에 배추 모종을 심으며 땀을 흘렸지만 보람이 있는 하루였습니다.

“

운동장의 잡초 제거와
배추밭에 배추 모종을
심으며 땀을 흘렸지만
보람이 있는 하루였습니다.



두런두런 봉사 소감 나누기

일이 끝난 후에는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배추를 심으면서 고향 생각,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으며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길가에 자라는 풀같이 살라는 어떤 법문이 떠올랐습니다.”

“함께하신 분들이 나누어준 말이 모두 소중했고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힘든 풀베기에 이어 휴식을 취할 때 나무 그늘의 고마움도 알았습니다.”

“역시 농사일의 힘들음을 다시 알게 되었고 음식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함께 팡나무 그늘에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봉사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JTS창고를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해운대 지부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봉사를 약속하며 봉사자들 함께



뜨거웠던 8월의 인천 송도 캠페인

우리 봉사자들은 8월의 어느 한 낮에 송도 거리에 나왔습니다. 뜨겁고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JTS와 봉사자들의 활동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햇볕도 뜨거웠고 지나가는 차량의 열기도 힘들었지만,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모금에 동참해 줄 때 감동이었습니다.



우리는 마포 캠페인 특공대

8월의 마지막 일요일, 홍대 입구 젊음의 거리에서 우리는 '마포지역 JTS 캠페인 특공대'가 되었습니다. 캠페인 때마다 잊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해주었던 활동가, 평소에는 사진 촬영을 했지만 오늘날은 직접 캠페인에 참여한 활동가, 말보다도 행동을 강조하던 활동가, 아드님과 함께 나온 활동가, 이들 모두가 우리 특공대입니다. 막상 하다보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안산다문화센터 법률상담

JTS안산다문화센터에서는 지난 5월 부터 매주 토요일 무료법률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세계 여러나라 출신의 다문화가족들이 법률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내용은 이주민의 특성 상 주로 국내체류자격, 귀화 관련 문제가 많고, 그 외에도 임금체불 및 대여금반

환청구와 같은 노동문제와 일반 민형사 사건 관련 문제 등 다양합니다.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이연우 변호사는 이 기회를 통해 다문화가족들의 법률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안산다문화센터 한방진료

JTS안산다문화센터에서는 한 달에 두 번 격주로 토요일 오후5시부터 9시까지 무료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스리랑카, 태국, 우즈베키스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이 좀 더 건강하게 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다문화 센터를 찾아 주세요.



화명지부 정기 거리캠페인

8월 어느날 저녁, 롯데마트 앞에서 JTS거리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3명만 참여하게 되어 어찌될까 걱정했는데 막상 진행해보니 인원은 별 문제가 되지않았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소중한데 잘 쓰이리라 생각하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중학생이 가는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 부끄러운 얼굴로 내민 만 원 정성에 우리 모두 감동 받았습니다. 그 학생에게 많이 배웠고 힘이되어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밴쿠버에서 온 소식

JTS밴쿠버지부에서 7월 15일 JTS기금 마련 나비 장터를 개최했습니다.

‘나누고 비운다’는 의미의 나비장터를 개최하며 가까운 JTS 지부에서 활동 중인 교민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2명의 봉사자가 참가한 이번 장터에서는 특히 김보경님이 방향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참석하여 한층 활기찬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필요한 물건을 자율후원으로 구매하여 이전보다 더 많은 기금이 마련되었습니다.

장소를 제공해주신 김정례님은 평소 치매 어머님을 모시느라 자주 못 뵈었는데 “올여름은 시원한 냉면을 동료 활동가들께 해드릴 수 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나비장터를 끝내고 즐거운 소감도 나누며 행사를 마쳤습니다. 모금액은 캐나다 달러로 717달러가 모금되었습니다. 기금이 얼마든 작은 실천, 작은 나눔을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해외 파견 자원 활동가

<p>인도</p>	<p>보광, 뿌리양카, 정동표, 김윤미, 신예슬, 이미경, 김민정, 이정미</p>
<p>필리핀</p>	<p>안병주, 김상훈, 서은실, 허유진, 박은혜, 한혜련, 박시현</p>

후원인의 소리

“

성채현

항상 감사합니다. 아버지 창녕 성씨 영선 영가의 극락 왕생과 딸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권우주

일 년 동안 받은 용돈의 일부를 모아 기부합니다. 이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김순애

꾸준히 기도하고 수행하는 딸의 소개로 알게되었습니다. 앞으로 배고프고 힘든 이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백서이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실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아이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지연

살아있는 모든 생명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함께 행복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임명희

강경덕 수술이 잘됨을 축하! 건강하기를 바래요.

김현정

집사람이 하늘나라로 가면서 남긴 것이니 좋은데 써주세요.

김경란

지금 닦친 힘든 일이 소멸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원철웅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윤경옥

작은 액수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원형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규

필요한 곳에 잘 쓰이기를 바랍니다.

강창현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김명진체육선생님 아가탄생 기념 후원합니다.

고영의

큰아이가 취업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나혜원

재수하고있는 혜원의 어머니입니다. 300일기도중에 100일이 되었네요. 북한의 청소년들도 꿈을 꾸고 이를 수 있는 곳에서 함께 하면 좋겠네요.

소민경

박희순 할머니 극락왕생을 바랍니다.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요. 할머니 사랑해요.

이명숙

심하은의 백일기념으로 후원합니다.

최민경

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 요가반 최고!

이두라(달라스)

점이 모여 선이 되고, 선이 모여 면이 되듯 작은 마음과 정성이 희망과 행복의 싹이 되길 기원합니다. 수고해 주시는 JTS 봉사자 분들 고맙습니다. 소식지 잘 보고 있습니다.

”

일시후원금 (2017. 7. 01. ~ 2017. 8. 31.)

복 한

강경림 강미선 강민준 강창현 강희란 고영의 김경미 김민기 김민호 김성남 김소영 김승희 김진환 김태경 김훈 나경주 나혜원 박선미 박완임 박정 배수정 백경화 서광명 서양숙 성채현 소민경 신재영 신종섭 양서윤 와우테크 이승열 이요한 이재열 이진일 이태호 이하운 이한곤 이호식 임계선 임진선 정백기 정치화 최혜련 한성욱 한양희 허대영 Kim Sookyoum

인 도

강민준 강희란 곽도순 김경란 김길원 김성초 김소영 김승희 김용덕 김주철 김진환 김태경 김현미 김형정 김형술 김훈 나희원 박새빈 박선미 박순희 박임순 박정숙 백경화 서광명 서양숙 석정호 성채현 소민경 소진호 신종섭 윤미희 이승열 이윤정 이재열 이주형 이진일 이태호 이한곤 정백기 정치화 조주현 한양희 허도근

필리핀

강미선 강민준 김도환 김민호 김소영 김승희 김진환 김태경 나경원 박완임 백경화 서광명 서양숙 석정호 성채현 소진호 신재영 신종섭 안산다문화(유애경)센터 이승열 이재열 이진일 이태호 이한곤 임계선 정백기 정치화 황석규

전 체

25740972 (주)성전메디 2주년 개원후원금 간디승환수아 갈정시 감사합니다 강미란 강민준 강분연 강불희 강성희 강인자 강준숙 강희란 고경민 고성대성초돼지 고성돼지이광희 고은귀 공윤경 광창호 구다인 구해원 권건우 권경민 권경원 권우주 금삼승민승필 기덕규 기정임 김갑순0929 김경만 김경희 김광선 김남희 김대광 김덕명 김도명 김동선 김동희 김륜한 김명규 김명자 김미라1748 김미숙 김미영 김미옥 김미향5359 김민아 김민영 김민정(지니모아) 김민정2910 김민정청주법당 김민호 김민호 김병환 김보리 김상미4093 김상수미소원 김상진 김서영 김서원 김선주 김선호 김설화 김성신 김성욱 김성운 김성자 김성진 김세정 김소영 김수연 김수윤 김순애 김승희 김애전 김연수 김연옥 김영주9792 김옥자6120 김용태 김원진 김유경 김윤홍 김은숙 김은주 김은희 김인숙 김재운(영가) 김정숙 김정숙1763 김종년 김종임안산다1581 김주철 김지숙 김지훈 김지희 김진환 김찬우2267 김춘배 김춘희 김태경 김해경 김해수 김현우 김현지 김형기 김형술 김형준7694 김희정 김희순7629 김희자 나모뽀다사 나무대비관세음 나문식 남재환 남호철 남희창7398 노순양 노신선 노하진 뉴캐슬빌딩 대한불교조계종운주선원 도담이 도림사주지스님 통글이 류수진 목인방 (김홍일) 문덕근 문미현 문서준 문예랑 문이진 문혜정 미소원장선이우물 박경자 박계만 박근택 박근희 박다정 박동수 박명호 박미라 박민우 박분남 박상기 박상길2269 박상철 박석희 박선미 박순양 박영기 박영숙 박옥경 박완임 박윤미 박윤정 박은선 박정섭 박정숙 노원 박정자 박제권 박종옥 박주하 박준우 박진숙 박현진 박혜정 박화자 박훈도행 반미정 방현희 배동규6047 배미현 배병문2141 배봉심 백경우 백경화 백서이 변동해 서광명 서말선 서민경 서승희 서양숙 서초아나바다 석정호 선타이 설희지 성채현 성현주 소진호 손명선 송문영 송순학 송우석 송정숙 송중수 신광섭영주돼지 신동근 신동현 신성애 신연 신원철 신은영 신재영 신종섭 신현정 심기옥 안계현 안김민석95729 안병주JTS 안산다김종임1581 안산다문화(유애경)센터 안산다문화행복 안산센터나비 안산심기옥95730 안산행복광좌마기영 안순영7833 안영민 안정현 안중문 안찬애 안춘시 안홍석 양동산 여백순 오윤경 오홍란 우다닥오양이호텔 우영란김버리 울산법당 원철웅 유경희 유미라 유미하(봉산돼지국밥) 유선희 유승열 유승자 유연서 유정자 유정훈 윤경미 윤경옥 윤미경 윤병은9488 윤선아 윤정환 윤지연 윤지영 윤진호 윤화차 이광주 이귀숙 이규태 이기성 이명숙 이미향 이선주 이성봉5603 이상제 이숙 이순옥 이슬이 이승훈 이심교 이양자 이연우 이영례 이영화 이요한 이용재영가 이원성 이원형 이윤숙 이윤주 이은희 이재성 이재우부천돼지 이정순 이정여 이정옥 이정우 이정화 이정환 이준학 이지연 이태경 이태호 이하운 이한곤 이한수당진돼지 이현숙 일개150자 임계선 임동욱(세음전산) 임명희 임병규 임연자 임윤진 임재현 임종택 임진선 임효진 임희태 장경희 김현채 장세영 장숙희 장윤희 장현련 전주현 전해준 전화영 정경자 정백기 정서영 정성우1722 정성윤3411 정세윤 정애심 정용한 정우철-미소원 정운점 정인규 정인화 정재5228네팔 정정희 정주현 정치화 정현욱 조병모 조복남 조아연 조영미 조영자 조영재 조은정 조은호4348 조지선1106 주정숙 중대행복학교7137 지명훈 차명정 차지는 최경숙 최경자 최경희 최동넉 최민경 최민영 최정운 최준현 최현미 최형욱 최화수부천돼지 최희경 투게다건강주택연구소 하나은행한남중 한동규 한신규 한양희 한원희 한중호 해피빈 행복강좌후원금 허경자 허춘자 홍단희 홍유인 홍유정 홍지훈 황영애 황유진 황윤선6222 후원금 EunHeeSo

미국JTS 후원금 (2017. 7. 01. ~ 2017. 8. 31.)

김경민
김미경
김재명
김지현
김학노
노유경
무기명
문희경
민덕홍/김순영
박경배
박승용
박정희

석은영
송호성 (Benevity)
시애틀 법당
신미라
안미영/안종식
유수영
유승목
유주영
이동근
이두라
이상섭
이선영

이재철
이주희
이지훈
임근희
임선희
콜럼버스 법당
하주홍
Amazon Smile
Catherine Cho
Hee Jun
Hyang Chu
Hyon C. Kang

Irene Shim
JJ Families LLC
Jung D Oh/Hyun Y Oh
Kyung J. Kim
Lauren Carre
Linda Davies
Michael W. Yang
San Lee
Stephanie Lee



나눔저금통 현황 (2017. 7. 01. ~ 2017. 8. 31.)

후원 문의전화 02-587-8995

♣ 나눔 저금통을 보내주시는 분의 성명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금통에 성명을 네임펜이나 볼펜 등으로 명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실을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거제 무기명 8개

거창 무기명 6개

경기광주 무기명 3개

경산 김경숙 박복주 최창주

경주

김명정 박선영 서양숙 이미지 이복순
이영해 최말숙 최윤순 한애자

무기명 1개

고성 이광희

광주

김봉식 문정단 민경아 민경희 서정덕
신진영 유우석 이명숙 임현숙 전현진

구리 무기명 5개

구미

고은정 이서현 장금림 장금옥 전희순
최화심 하경희
상가 홈플러스

군산 황명옥

군포 무기명 5개

금정

강미경 김나현 김정희 박영석 오경하
윤태성 정일근2개 홍위둘

무기명 4개

기타

151차일깨돼지 김국한 김미향 김보경
김은수 김철주 김현수 남호철 문현주
민각래 박명룡 박정숙 박진숙 손준호

송해종 안경희 이순모 이순옥 이신영
이준학 저금통정산 조지선 최상필
탁철환 파이팅
상가 현대오토에버울산

기흥 무기명 8개

김해 무기명 6개

남양주 무기명 1개

내서 무기명 2개

노원 무기명 16개

당진 이한수

무기명 2개

대구

김성옥 김인숙 박정남 반아월 송경시
안선영 이경희 이수미 이아림 이용주
장주희

무기명 8개

상가 OK포인트마트2개

상동나이스마트2개

수성파머스마켓3개

자산동나이스마트

자산동테레사마트3개

자산동테레사소비센타

자산동OK포인트마트3개

칠곡소망어린이집7개

대연 무기명 21개

대전

강상숙 권재옥 김민아 김예진 김옥연
김윤형 김은미 문상연 박세희 성지휴
송미숙 신철로 윤광자 이상순 이윤숙
2개 이윤주 임난희 임보희 이재훈

전경숙 정향숙 정현자2개 조정숙
최경연 최숙연 홍경숙 황수환
무기명 8개

덕양 무기명 3개

동래

강영우2개 강은정 강혜원 광보선
김갑선 김미영 김성찬 김승은 김주점
김청자2개 김현우 류현순 박동소
박소는 박순향 박연희2개 배종숙
백종원 손성준 신명숙 신혜숙
심근우 안윤순 유숙희 이경희 이기호
이나금4개 이미지 이상정2개 이수정2개
이은희 이정현 임미정 장태원 전성자
조정성 진성찬 최지영 황금순 황해옥
무기명 9개

마산

감창수 권기철 김지영 서호준 이현희2개
우경임 이은옥 이복숙 이창균 홍현서
무기명 3개

문경 고재숙 박기숙

밀양 무기명 2개

부사 서주원 박예진 박경희

무기명 2개

부천 이재우 최화수

무기명 1개

부평 이선영

사천 박영선 2개

무기명 1개

사하 무기명 2개

서초

강순남 고우석 고은실 김경아 김민정
김소희 김태오 문규복 문현숙 박태희
백혜은 변정은 신정규 안희준 유성숙
유승후 유혜지 유호승 유훈성 윤정택
이미연 이승준 이영배 이은임 이재민
이진미 이화영 장혜영 장혜영3개
정태균 최정곤
무기명 38개
상가 최병호 신경외과, 슈베이커리

성북 무기명 4개

성서 김도혁 문성해 배상연 손복희
무기명 1개

세종

김윤경 김찬욱 김현미 설성문 정선희
조주호
무기명 1개

송파 송중화

무기명 1개

시흥 무기명 11개

신서 무기명 3개

안산다문화센터 태국운

안양 무기명 2개

영주 신광섭 채지영

왜관 김옥조 한영해

윤정 무기명 6개

울산

강미숙 김미숙 박주영 박행숙 신은영
이미영 이영옥 이현미 정영준2개
정희진 구영리푸르지오
무기명 6개
상가 빠리바게트, 울산숯불갈비
장현동커피숍, 탕크카울산상사

원주 무기명 4개

은평 무기명 1개

음성 무기명 1개

의창 무기명 6개

일산 무기명 2개

정관 무기명 6개

정읍 서순석

제주 무기명 7개

제천 박경애 신선희 이정화

종로 송현자

진주 무기명 18개

진해 무기명 2개

청주 박선숙

통영 무기명 1개

평택 무기명 5개

포항역산 무기명 5개

해운대 무기명 10개

화명

강성란 박유황 손성옥 윤미리 정귀자
무기명 1개

화봉 문현정 박희정 최명옥
무기명 1개

1회 송금

강남 강릉 관악 관평 권선 동대문 동작
목포 서산 성동 아산 양평인천
제천덕산 중리 천안 흥덕

2회 송금

강서 광명 김포 서면 양산 영통 의정부
전주 창원 파주 함안

3회 송금

도봉 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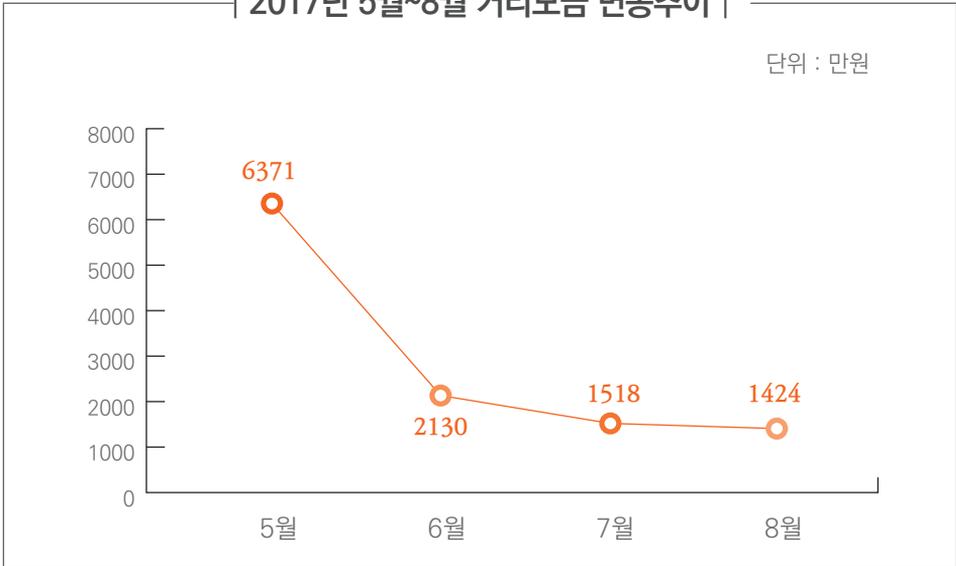
거리모금 현황

(2017년 7월 1일 ~ 2017년 8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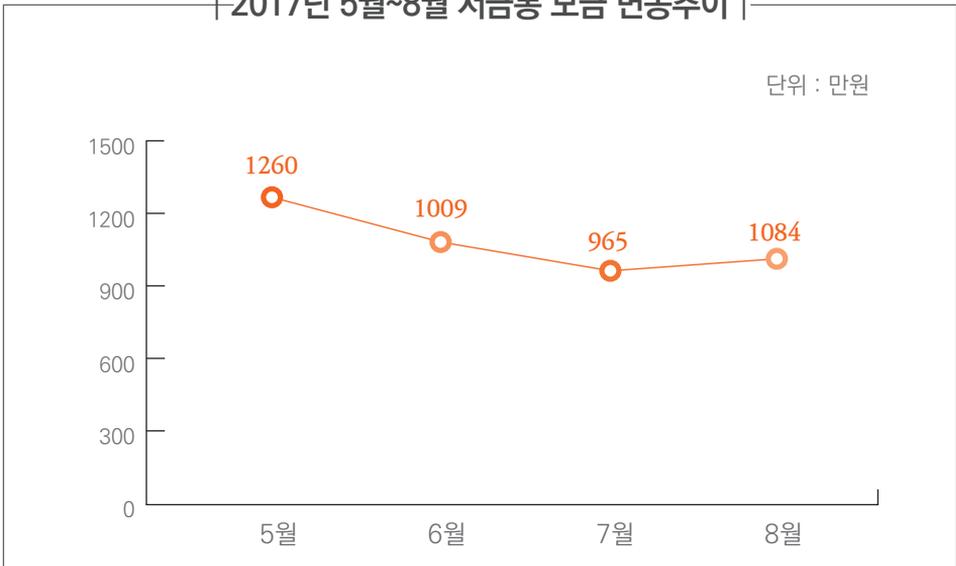
강동 143,100 강북 86,000
강화 157,200 거제 639,280
거창 102,000 경기광주 146,890
경산 56,800 경주 917,600
공주 143,000 관악 368,750
광주 208,200 구리 221,300

구미 661,810 군포 137,300
금정 340,670 기흥 103,500
김천 200,000 김포 223,330
김해 281,410 남양주 199,200
내서 145,400 노원 460,560
달성 119,000 대구 657,100
대전 263,040 덕산 343,330
덕양 211,070 동대문 94,000
동래 424,910 동인천 142,300
동작 72,500 마산 348,250
마포 55,500 문경 114,100
밀양 47,870 방어 112,000
부천 392,110 분당 285,040
사천 317,100 사하 206,400
상주 75,660 서초 938,200
서현 341,720 성동 48,000
성북 110,460 성서 454,300
세종 90,620 송파 222,020
송헌 354,300 수원 225,410
수정 350,980 시흥 109,000
신서 32,000 안동 156,650
안성 80,430 안양 315,350
양덕 292,820 양산 173,870
양천 83,400 양평 125,420
연양 54,000 영주 342,850
영통 240,500 옥곡 45,600
왜관 64,100 용인 230,870
울산 434,420 원주 123,950
은평 61,700 의정부 309,170
의창 153,680 일산 448,750
장유 286,380 전주 98,000
제주 177,670 종로 255,600
중랑 75,000 중리 105,000
진주 267,500 진해 168,810
창원 290,500 청도 44,850
대전 129,700 파주 175,800
평택 221,160 하남 86,110
해운대 494,950 화명 290,050

| 2017년 5월~8월 거리모금 변동추이 |



| 2017년 5월~8월 저금통 모금 변동추이 |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손길 자원봉사활동

국내 자원 봉사과 함께 하세요

지원하고 싶은 자원봉사를 선택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내봉사 분야 : 번역,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후원관리,
영상, 출판/인쇄, 교육 등
<http://www.jts.or.kr>

JTS 자원봉사 문의 : 02)587-8756

한국JTS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캠페인 등
여러가지 나눔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손길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작은 재능으로 큰 마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손길이 되어 주세요.

[한국JTS 투명한 기금 운영알기]
JTS에서는 재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중한 기금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눔회원으로 행복을 찾으세요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부금 사용자 : 번역,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후원관리, 영상, 출판/인쇄, 교육 등

JTS 후원 문의 : 02)587-8995

나눔회원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
하실 수 있고 신청서 작성을 통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덜 쓰고 덜 가짐을 통해서 나누는 일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한국JTS 네이버 해피빈나눔

<http://happylog.naver.com/jtstogether>

한국JTS 나눔저금통

작은 저금통에 큰 마음 담기



아름다운 이웃을 만드는 나눔 나눔회원활동

JTS 정기후원회원 가입 신청서

1. 후원사업 및 금액 후원을 원하시는 사업(금액)에 V 표시를 해주세요.

북한 사업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인도 사업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필리핀 사업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JTS 전체 사업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2. 후원회원 인적사항 기부금 영수증 신청서만 기재해 주세요.

성명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단체)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핸드폰	이메일
주소 (소식지 수령방법 : <input type="checkbox"/> 우편수령 <input type="checkbox"/> 받지 않음)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으로서 신청인의 (사)한국제이티에스의 정기후원회원 가입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 (인) (연락처:)	
본인(단체)은 상기와 같이 (사)한국제이티에스의 정기후원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체) : (인)	

대우리 부편 전체를 꼼꼼하고 반으로 접어 주세요.

신청서 제출 후 JTS 홈페이지(www.jts.or.kr)에서 오프라인 후원자 등록을 하시면, 회원정보와 후원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하거나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3. 후원금 출금계좌 CMS 출금이체에 대한 뒷면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예금주명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단체)	예금주 주민번호 및 계좌리 (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가 후원인 본인이거나, 예금주로 부터 출금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예금주 연락처:)	
은행명	후원금 출금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17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말일
후원금 출금 계좌번호	

4. 개인정보 수집 및 CMS 출금 동의 후원을 위한 정보제공에 동의해주세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small>[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이용목적: 회원관리기부금영수증 발급, 후원금 인출, 수진활동, 선별주민등록번호 확인 등 이 회원주소,예금주명,예금주,생년월일,은행명,후원금 출금 계좌번호, 이용기간, 동의일 부터 동의일 이후 5년, 기부관리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이 불가능합니다.</small>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small>[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 이용목적: 기부금영수증 발급,연방장사 서비스, 수진활동, 주민등록번호, 이용기 간, 동의일 부터 5년, 기부관리 및 불이익, 귀하는 고유식별번호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 우 연방장사 서비스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small>	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small>[개인정보 등 제3자 업무위탁] *수탁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CMS출금결제 승인 및 장사 제공은 예금주 명,예금주,생년월일,은행명,후원금 출금 계좌번호,해당, 이용기간, 동의일 부터 5년, 기부관리 및 불이익, 귀하 (수탁회사)로부터만, 위탁업무, 회원관리(온라인) 서비스,기부금영수증 발행, 제공정보, 선별주민등록번호 확인 등에 이용주소,예금주명,예금주,생년월일,후원금 출금 계좌번호, 이용기간, 동의일 부터 5년, 기부관리 및 불이 익, 귀하는 개인정보 등 제3자 업무위탁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 CMS 후원금 출금이체가 불가 합니다.</small>	개인정보 등 제3자 업무위탁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small>[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기관, 목적, 제공받는 업무(장사)서비스, 제공받는 선별주민등록번호, 이용 기간 및 양, 기부관리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연방장사 서비스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small>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본인(단체)은 상기와 같이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체) : (인)	

JTS 후원계좌 안내

국민은행 086-01-0339-254 (사)한국제이티에스

(입금 후 꼭 전화를 주셔야 기부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JTS의 생각

국가, 민족, 종교를 넘어서 먼저 해야 할 일
하나,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둘, 아픈 사람은 치료 받아야 합니다.
셋, 아이들은 제때 배워야 합니다.

손가락은 각각이지만 하나로 이어져 있듯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임을 알았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행복하기 위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JTS가 되었습니다.



- ❖ 지정하신 출금일에 계좌 잔액이 부족한 경우, 다음 출금일에 2회까지 재출금을 시도합니다.
(예: 지정일인 10일에 잔액 부족으로 인출이 안되면, 17일과 25일에 인출을 재시도합니다.)
- ❖ 홈페이지에서 정기후원 신청을 하시면, 후원 가입 신청서를 따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 ❖ 후원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후원자 등록"을 하시면, 후원내역 변경과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사)한국제이티에스 www.jts.or.kr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4746 대표자명 : 최석호
E-mail : cr@jtsint.org FAX : (02) 587-8998 후원문의 : (02) 587-8995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7 (서초동)
사단법인 한국제이티에스

0 6 6 5 3